

신라 왕실의 김유신에 대한 인식 변화와 그 推尊

The change in awareness of Kim Yooshin and honoring him of Silla Royal family

저자 (Authors)	채미하 Chai, Mi-Ha
출처 (Source)	한국사학보 , (61), 2015.11, 423-451 (29 pages) The Journal for the Studies of Korean History , (61), 2015.11, 423-451 (29 pages)
발행처 (Publisher)	고려사학회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Korean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569081
APA Style	채미하 (2015). 신라 왕실의 김유신에 대한 인식 변화와 그 推尊. 한국사학보, (61), 423-451.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0/21 10:29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 왕실의 김유신에 대한 인식 변화와 그 推尊

채 미 하*

1. 머리말
2. '聖臣' 김유신과 후손의 동향
3. 김유신의 '大王' 추봉과 그 이유
4. 김유신의 推尊과 家廟의 운용
5.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신라 중대 이후 신라 왕실의 김유신에 대한 인식 변화와 그 推尊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김유신은 사후 문무왕과 함께 二聖의 하나로 聖臣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중대왕실은 무열계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하면서 혁거세와 알영을 이성으로, 혜공왕대의 오묘에서는 태종대왕과 문무대왕을 '불훼지종'으로 모셨다. 이것은 김유신의 위상이 중대 초와는 달라졌음을 말하는 것으로, 김유신 후손에 대한 중대왕실의 대우와도 궤를 같이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김유신가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였는데, 혜공왕 15년 김유신의 혼이 미추왕릉을 찾아간 것이 그것이었다. 미추왕은 혜공왕대의 오묘제 개정에서 시조대왕으로 모셔졌지만, 이와 관련해서 무열계와 내물계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다. 하지만 김유신의 혼이 미추왕을 찾아가 호소한 것을 계기로 그 갈등은 마무리되었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김유신가는 중대 말 이후 내물계와 연합하여 신라 하대 그 위상을 유지하였는데, 김유신의 흥무대왕 추봉은 그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었다. 흥

* 한성대학교 한국고대사연구소.

대표논문 : 2015, 『신라의 오례와 왕권』, 혜안 ; 2014, 「신라의 건국신화와 국가 제의」, 『한국사학보』 55 ; 2013, 「한국고대의 궁중의례」, 『사학연구』 112.

덕왕은 김유신가를 무열계 및 금관가야지역과 분리시켜 자신의 지지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김유신을 흥무대왕으로 추봉하였다. 그리고 경명왕이 김유신을 흥무대왕으로 재추봉한 이유는 후삼국이라는 당시의 상황 속에서 금관가야지역에 대한 신라의 지배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김유신은 대신에서 대왕으로 그 위상이 바뀌면서 김유신의 무덤을 비롯한 여러 시설물은 대왕급으로 변화하였으며 김유신은 금관가야집단의 중시조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로써 김유신가는 수로왕묘와 구분되는 새로운 제사권을 형성하였고, 진천의 김유신사는 김유신가의 家廟라고 하였다. 그리고 김유신에 대한 제사는 취선사에서 이루어졌는데, 김유신이 대왕으로 추봉된 이후에는 취선사가 진전사원 형태로 변화하였다고 하였다.

1. 머리말

김유신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신라 중대의 무열왕권을 성립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공적으로 말미암아 신라 중대에 二聖의 하나이며 聖臣으로 인식되었으며 신라 하대에는 흥무대왕으로 추봉되었다. 이와 같은 김유신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이 중 김유신 사후 김유신가가 중대왕실에서 배제되는 과정과 그 후손들의 동향,¹⁾ 김유신에 대한 현창과 신라 하대의 흥무대왕 추봉이 그것이다.²⁾ 이를 통해 신라 중대 이후의 김유신의 위상과 후손의 동향, 김유신의 현창 및 흥무대왕 추봉이 가지는 의미 등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김유신 사후 김유신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다. 즉 김유신은 이성의 하나, 성신으로 신라 내내 인식되

1) 조변환, 2007, 「김유신의 가계와 후손들의 활동 -‘가야계 출신이어서 가지는 한계’의 학설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신라사학보』 11.

2) 이문기, 2004, 「금관가야계의 시조 출자 전승과 구성의 변화」, 『신라문화제학술 논문논문집』 25 ; 이현태, 2006, 「신라 중대 신김씨의 등장과 그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42 ; 김창겸, 2010, 「신라시대 김유신의 흥무대왕 추봉과 ‘신김씨」, 『신라사학보』 18 ; 김호동, 2011, 「김유신의 추승에 관한 연구」, 『신라사학보』 22 ; 윤경진, 2015, 「신라 興德王代 체제 정비와 金庾信 追封 -三韓一統意識 출현의 일 배경-」, 『사림』 52.

었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의 후손이 신라 중대 말 무열계에게 배제되고 있는 사실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신라 중대 김유신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것이 그 후손의 위상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김유신의 흥무대왕 추봉과 관련된 기록은 흥덕왕대와 경명왕대로 나온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대체로 흥덕왕대에 흥무대왕으로 추봉되었다고 이해하고 있지만, 경명왕대로 보기도 한다. 따라서 경명왕대의 기록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흥덕왕대 김유신이 흥무대왕으로 추봉된 것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그의 후손이 헌덕왕대 김현창의 반란에서 큰 공적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흥덕왕이 김유신을 대왕으로 추봉한 것은 당시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경명왕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한편 김유신은 흥무대왕으로 추봉되면서 금관가야집단의 증시조로 자리매김하였고 推尊(받들어 존경하다)되었다. 지금까지 추존의 구체적인 양상인 무덤 등 여러 시설물의 변화에 대한 언급은 있었다. 하지만 전근대 사회에서 추존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제사가 아닐까 한다. 따라서 흥무대왕 추봉 이후 김유신에 대한 제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김유신 사후 그에 대한 인식과 대왕 추봉 이후 김유신의 추존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김유신 사후 김유신에 대한 인식과 그 후손의 동향을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 김유신이 흥무대왕으로 추봉되는 이유를 흥덕왕대와 경명왕대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것이다. 그리고 김유신이 대왕으로 추봉된 이후 그에 대한 추존을 제사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그것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2. ‘聖臣’ 김유신과 후손의 동향

김유신은 삼국통일 과정과 무열왕권의 성립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무열왕계를 도우면서 당시 최고의 대우를 받았으며 문무왕은 자신과 김유신의 관계를 물고기와 물의 관계로 비유하였다.³⁾ 그리고 문무왕 13년(673) 그

가 죽은⁴⁾ 이후 그의 위상과 관련해서는 다음이 주목된다.

A. 제31대 신문대왕의 이름은 정명이며 성은 김씨다. 개요 원년 신사(681) 7월 7일에 왕위에 올랐다. ... 이듬해 임오(682) 5월 초하루에 해관 파진찬 박숙청이 아뢰기를, “동해 중의 작은 산 하나가 물에 떠서 감은사를 향해 오는데, 물결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이를 이상히 여겨 일관 김춘질(또는 춘일)에게 점을 치도록 하였다. 그가 아뢰기를, “돌아가신 부왕께서 지금 바다의 용이 되어 삼한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또 김유신공도 33천의 한 아들로서 지금 인간 세상에 내려와 대신이 되었습니다. 두 성인[二聖]이 덕을 같이 하여 나라를 지킬 보배를 내어주려 하시니, 만약 폐하께서 해변으로 나가시면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큰 보배[無價大寶]를 만드시 연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기뻐하였다. ... (『삼국유사』 권2, 기이2 만파식적)

사료 A)에 따르면 일관 김춘질이 신문왕에게 김유신은 33천의 一子로서 세상에 내려와 大臣이 되었으며 죽어서는 천신이 되었다고 하면서 문무왕과 김유신의 二聖이 뜻을 같이하여 無價大寶를 줄 것이라는 예언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신문왕은 문무왕과 김유신이 보낸 使者龍⁵⁾으로부터 흑옥대를 받았으며 또한 용이 대나무를 피리로 만들어 불면 천하가 태평해질 것이라고 가르쳐 주자, 신문왕은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었고 그 피리인 만파식적을 천존고에 간직하고 국보로 삼았다고 한다.⁶⁾

이처럼 김유신은 사후에도 문무왕과 뜻을 같이하여 신문왕에게 흑옥대와 만파식적을 보냈다. 신문왕이 즉위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일어난 김흠돌의 난⁷⁾은 오랫동안 김춘추와 김유신 두 세력 집단 중심의 정치 운영에 대해 대척적인 입장에 섰던 귀족세력들의 도전이었다.⁸⁾ 하지만 신문왕은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고 난 뒤, 정치적 안정을 위해 군신과의 조화와 합심을 강조하였을 것이다. 흑옥대와 만파식적이 전달된 시기는 신문왕이

3) 『삼국사기』 권43, 열전3 김유신(하).

4)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3년 ; 『삼국사기』 권43, 열전3 김유신(하).

5) 김상현, 1981, 「만파식적 사회의 형성과 의의」, 『한국사연구』, 1981, 9쪽.

6) 『삼국유사』 권2, 기이2 만파식적.

7)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신문왕 원년.

8) 후보돈, 1999, 「신라의 달구벌천도 기도와 김씨집단의 유래」, 『백산학보』 52.

즉위한 다음해로 김흠돌의 난을 평정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은 때였다. 따라서 흑옥대설화와 만파식적설화는 무열왕권의 정당성과 신문왕권의 강화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⁹⁾

그리고 『삼국사기』 신라본기 신문왕 12년조와 『삼국유사』 기이 태종춘추공조에 따르면 태종무열왕의 묘호인 태종은 聖臣 김유신을 얻어서 삼국을 통일하였으므로 태종이라 하였다는 것이다.¹⁰⁾ 그런데 『삼국사기』에 따르면 당 중종이 신문왕 12년(692) 당의 사신이 태종무열왕의 묘호가 당 태종과 같다고 하여 고칠 것을 요구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신문왕 때 당 고종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어 태종무열왕의 묘호를 바꾸도록 하였으나, 신라에서는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는 태종 묘호를 改修한 시기에 차이가 보인다. 하지만 묘호의 개수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당 고종에 의해서이고,¹¹⁾ 그 시기는 신문왕 즉위년에 신라에 온 책봉사를 통해서였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¹²⁾ 이로 볼 때 당과 신라 사이에 태종무열왕의 묘호가 문제된 것은 신문왕 12년이 아닌 신문왕 즉위년에 있었던 사실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신문왕 7년(687) 오묘에 태종대왕이라는 묘호를 고수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¹³⁾

이처럼 김유신은 사후 문무왕과 함께 신문왕에게 호국의 보배인 흑옥대와 만파식적을 보냈고 신문왕 초기에 있었던 당과의 太宗 묘호의 분쟁 역시 김유신과 관련된 것이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김유신가는 김춘추와 혼인하고 삼국통일 과정과 무열계의 성립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무열계를 도왔다. 따라서 김유신가와 무열계는 당시 한 집안으로 이해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다음이 관심을 끈다.

9) 만파식적 설화는 무열왕권의 정당화 및 신문왕권의 강화라는 당시의 정치적 목적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였다(김상현, 1981, 앞의 논문, 12~16쪽). 채미하, 2006, 「천사옥대와 흑옥대」, 『경희사학』 24 ; 2008, 『신라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231~235쪽도 참고.

10)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신문왕 12년 ; 『삼국유사』 권1, 기이1 태종춘추공.

11) 황운용, 1982, 「신라 태종 묘호의 분규시말」, 『동국사학』 17, 15~18쪽.

12) 권덕영, 1997, 『고대한중외교사 -견당사연구-』, 일조각, 45쪽 주) 110.

13) 채미하, 「신라의 오묘제 '시정'과 신문왕권」, 『백산학보』 70 ; 2008, 앞의 책, 163~165쪽.

B. ... 신라의 제30대 법민 용삭 원년 신유(661) 3월 어느 날에 이르러, 왕명을 전하는 칙서를 내려 이르기를, 1) “짐은 가야국 원군의 9대손인 구형왕이 우리나라에 항복하였을 때, 데리고 온 아들인 세종의 아들이 솔우공이요, 그 아들 庶云 匪干의 딸인 문명황후께서 나를 낳으셨다. 그러므로 元君은 나에게 있어서 15대 시조가 된다. 2) 다스린 나라는 이미 패망하였으나, 능과 사당[葬廟]은 아직 남아 있으니, 宗祧에 합하여 계속 제사를 지내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삼국유사』 권2, 기이2 가락국기)

사료 B-1)을 보면 문무왕이 가락국의 건국시조인 元君 곧 수로왕으로부터 자신에 이르기까지의 世系를 가야국 원군(수로왕) ... 9대손 구형왕 → 세종 → 솔우공 → 庶云 匪干 → 문명황후 → 문무왕이라고 밝히고 수로왕이 자신의 15대 시조라고 하였다. 그러나 수로왕은 문무왕의 15대조가 되지 않는다.¹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무왕이 수로왕을 자신의 15대 시조라고 한 것은 당시 김유신 세력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었다.¹⁵⁾

김유신이 사망한 직후인 문무왕 13년경에 세워진 庾信碑¹⁶⁾에는 김유신가의 연원을 ‘軒轅之裔 少昊之胤’¹⁷⁾이라 하여 김유신가는 신라 중대왕실과 동일한 출자관념¹⁸⁾을 표방하고 있다. 김씨왕실은 이미 계보를 갖고 있었지만,¹⁹⁾ 중대왕실은 김씨 칭성의 이유를 중국 상고 전승에 나오는 少昊 金天氏에서 찾았으며 태조=성한이 소호금천씨를 직접 계승하고 있음을

14) 村上四男, 1978, 「金官國 世系 卒支公(率友公)」, 『韓國古代史研究』, 開明書院, 372~382쪽.

15) 채미하, 2002, 「신라 종묘제의 수용과 그 의미」, 『역사학보』 176 ; 2008, 앞의 책, 125~126쪽 및 138쪽 참고.

16) 사료 E 참고.

17) 『삼국사기』 권41, 열전1 김유신(상). 여기에 보이는 유신비는 문무왕 13년 김유신이 사망한 직후에 건립되었다(이문기, 1999b, 「신라 김씨 왕실의 소호금천씨 출자 관념의 표방과 그 변화」, 『역사교육논집』 23·24, 660~669쪽 ; 이현태, 2006, 앞의 논문, 241쪽).

18) 『삼국사기』 권41, 열전1 김유신(상) ;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의자왕 30년 史論 ; 문무왕릉비와 김인문묘비. 이문기, 1999b, 앞의 논문, 669~672쪽 ; 2004, 앞의 논문, 29~37쪽 ; 이종태, 1999, 「신라의 시조와 태조」, 『백산학보』 52, 15쪽 주) 20 참고.

19) 강중훈, 1994, 「신궁의 설치를 통해 본 마립간시기의 신라」, 『한국고대사논총』 6, 204~212쪽.

내세웠다.²⁰⁾ 즉 「문무왕릉비」에 따르면 ‘火官之后’(黃帝) → ‘稗侯祭天之胤’(少昊金天氏, 金姓의 由來) … 15代祖 星漢王이라고 하였다.²¹⁾ 그리고 문무왕은 부계쪽으로 성한을 15대조로 인식하였는데, 이것은 수로왕을 15대조로 여긴 것과도 관련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김유신가와 무열계는 서로 戚里관계로 맺어져 있었으며 김유신 사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김유신가의 영향력은 상당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김유신 사후 그의 동생인 김흠순이 상대등이 되었고²²⁾ 아들인 삼광은 신문왕 3년(683)에 김흠순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일 때 김개원·김문영 등과 함께 그 일을 수행하고 있으며²³⁾ 효소왕대 초반까지 왕의 측근으로 활동하였다.²⁴⁾ 김유신의 손자인 윤중은 성덕왕대 발탁되어 왕권 강화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²⁵⁾ 성덕왕은 11년(712)에 김유신의 妻를 봉하여 부인으로 삼고 해마다 穀 1천석을 주기도 하였다.²⁶⁾

하지만 성덕왕대 윤중에 대한 특별한 은혜에 대하여 왕의 친속들이 ‘소원한 신하’라고 하여 질투하면서²⁷⁾ 김유신가는 점차 무열계에서 배제되어 갔으며²⁸⁾ 혜공왕 6년(770) 김유신의 반란은 여기에 대한 불만이었다.²⁹⁾ 이

20) 채미하, 2002, 앞의 논문 ; 2008, 앞의 책, 132쪽 및 138쪽.

21) 이문기, 1999b, 앞의 논문, 653~655쪽.

22) 조범환, 2007, 앞의 논문, 46~52쪽에서 김흠순은 김유신이 죽자 그를 이어 673년 7월에 상대등이 되었고 문무왕 20년(680) 2월 경에 퇴임하였다고 보았다.

23)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신문왕 3년.

24) 『삼국사기』 권47, 열전7 열기. 삼광이 언제 집정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열기를 지방관으로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신문왕이 죽은 이후 효소왕까지 살아 있었다면 효소왕을 도와 정치를 주도하였을 것이다(조범환, 2007, 앞의 논문, 52~53쪽).

25) 『삼국사기』 권43, 열전3 김유신 ; 조범환, 2007, 앞의 논문, 54~57쪽.

26)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성덕왕 11년.

27) 『삼국사기』 권43, 열전3 김유신.

28) 이기백, 1974, 「신라 혜공왕대의 정치적 변혁」,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251쪽 ; 이문기, 2004, 앞의 논문, 41쪽.

29) 신형식은 1984, 『한국고대사의 신연구』, 일조각, 255쪽에서 혜공왕대를 전후하여 6두품으로 전락함에 이르러 반발을 피한 것이 김유신의 난이라고 하였고 박해현은 2003, 『신라중대정치사연구』, 국학자료원, 164쪽에서 김유신 후손들이 외척의 견제를 받자 난을 일으킨 것이라고 하였다. 이기백은 김유신 사후 김유신가는 그 세력이 약해져 갔을 것이라고 하였다(1982, 앞의 책, 316쪽). 그런데 조범환은

와 같이 중대 말 김유신 후손이 중대왕실에서 배제되어 가는 것은 김유신과 김유신가에 대한 인식 변화와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사료 B-2)에서 문무왕은 “合于宗祧 續祀乃事”, 곧 수로왕묘를 ‘宗祧’에 합하여 제사를 계속하게 하라고 하였는데,³⁰⁾ 이것은 수로왕을 신라 종묘에 모시는 조처였다. 이와 같이 가락국의 건국시조인 수로왕의 신위는 문무왕대의 종묘에 모셔졌는데, 이것은 당시 무열계와 김유신가와의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³¹⁾ 이와 같은 수로왕의 신위를 신라의 종묘에 모시라는 制書가 내려진 것은 문무왕 2년(662)이었고, 문무왕 20년에는 금관가야의 옛 땅에 금관소경을 설치하였다.³²⁾

하지만 문무왕대의 종묘는 신문왕이 즉위하고 얼마 있지 않아 개편되면서 수로왕의 신위는 신라의 종묘에서 천해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신문왕은 김흠돌의 난을 평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문왕의 왕권을 공고화하였다.³³⁾ 이 때 문무왕대 종묘에 모셔졌던 수로왕을 천해하였는데, 이것은 신문왕 7년의 오묘제사에서도 알 수 있다.³⁴⁾ 그리고 다음도 관심을 끈다.

2007, 앞의 논문, 57~58쪽에서 김용의 반란은 김유신 후손들의 정치적인 지위가 하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김용이 반란을 일으킨 9년 후 김유신과 관련된 설화가 등장한 것은 김유신 후손들의 정치적인 위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30) “合于宗祧 續乃祀事”를 “이를 종묘에 합사하고 제사를 계속할 것이다”(리상호 옮김, 1960, 『삼국유사』, 272쪽), “종묘에 합하여 제사를 계속케 하리라”(李丙燾, 1992, 『三國遺事』(修正版), 乙酉文化社, 292쪽), “종묘에 합하여 제사를 계속하게 하겠다”(李載浩, 1975, 『三國遺事』(中), 明知大學出版部, 139쪽)로 해석하고 있다.

31) 문무왕대 김유신 세력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최병헌, 1974, 「신라말 김해지방의 호족세력과 선종」, 『한국사론』 4, 1978, 410~411쪽 ; 김상돈, 1996, 「신라말 구가야권의 김해 호족세력」, 『진단학보』 82, 64쪽 ; 채미하, 2002, 앞의 논문 ; 2008, 앞의 책, 124~126쪽.

32)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20년 ; 『삼국사기』 권34, 잡지3 지리 1(양주). 이현태는 2006, 앞의 논문, 260~263쪽에서 김해에 금관소경을 설치한 것은 문무왕이 김해거주 금관가야왕족의 후손들에게 사성하려는 것과 연관 지어 이해하였다.

33) 이기백은 1982, 앞의 책, 309쪽에서 전제왕권 확립으로 보고 있으나, 이것을 신문왕권의 확립으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

34) 채미하, 2004, 앞의 논문 ; 2008, 앞의 책, 159~161쪽 참고.

C. 봄 정월에 알영을 세워 왕후로 삼았다. … 어진 행실이 있어 능히 안으로 잘 보필하여 당시 사람들이 二聖이라 일컬었다. 權近이 말하였다. … 알영이 시조의 妃가 되자, 국인이 아름다움을 칭송하였으니, 반드시 그 德은 국인의 마음을 복종케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시조와 더불어 아울러 二聖이라 칭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성의 칭호는 唐 高宗·武后의 때로, 고종이 무후에 빠져서 왕후로 세웠고 무후가 교활하고 사나워서 大政에 간여하여 簾을 드리우고 聽斷했으므로, 그 때 사람들이 이성이라 불렀다. 신라시대 초에 민속이 순박하여 그 임금을 일컫는데도 방언을 사용하였으니, 마땅히 이성이라고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필시 신라 사람들이 당 고종을 섬긴 뒤에 이성의 칭호를 익숙히 들어서 그 그릇됨을 알지 못하고 이를 본받아 追稱한 것이 아니겠는가? (『삼국사절요』 권1, 신라 혁거세거서간 5)

위의 사료 C는 신라 혁거세거서간 5년(서기전 53)조에 보이는 권근의 史論이다. 여기에 따르면 二聖이라는 칭호는 당나라 高宗이 武后에게 빠져서 황후로 세웠고 무후가 교활하고 사나워서 大政에 간여하여 簾을 드리우고 함께 聽斷했으므로 그 때 사람들이 이성이라고 일컬었다고 한다.

이로 볼 때 신라에서 이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당 측천 무후 이후였을 것이다.³⁵⁾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신문왕 초기까지 문무왕과 김유신은 이성으로 여겨졌다. 그러하다면 혁거세와 알영이 이성으로 인식된 것은 그 이후이며 아마도 김유신의 후손이 중대왕실에서 배제되는 성덕왕대 이후에 신라의 이성은 혁거세와 알영으로 여겨지지 않았을까 한다. 이와 더불어 중대 왕실은 김유신 후손을 자신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신김씨를 주어 칭성하게 하지 않았을까 한다.³⁶⁾ 이것은 「皇福寺碑片」의 “奈麻新

35) 채미하, 2014, 「신라의 건국신화와 국가제의」, 『한국사학보』 55, 187~188쪽에서 신라 중대왕실은 소호금천씨 후손인 성한을 태조로 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면서 혁거세와 알영뿐만 아니라 탈해신화도 변화시켰으며 혁거세=알영=알지의 탄생을 동일시하였다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혁거세와 알영을 이성으로 여겼다고 하였다.

36) 금관가야가 멸망하고 신라에 투항해 와 신라 진골에 편입되고 성씨를 취득하면서 신김씨를 사용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그 시기와 관련해서 문무왕 20년(680)에 김해 거주 금관가야 왕족의 후손들에게 지방에서 올라온 새로운 김씨라는 의미를 지닌 신김씨를 하사했다고 하며(이현태, 2006, 앞의 논문, 233~266쪽), 신문왕 3년 보덕국왕 안승이 신김씨를 칭했다고 하기도 한다(문경현, 2007,

金季△△”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황복사비는 효소·성덕왕대 황복사가 중창되는 과정에서 세워졌으며 늦어도 경덕왕 18년(759) 이전에 건립되었다고 한다.³⁷⁾

한편 『삼국사기』 제사지에 따르면 혜공왕대 태종대왕과 문무대왕의 신위가 시조대왕과 함께 ‘不毀之宗’으로 모셔졌는데,³⁸⁾ 그 이유는 태종대왕과 문무대왕이 삼국통일에 큰 공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처럼 태종대왕과 문무대왕은 삼국통일의 영주로, 신라 중대 여러 왕들도 태종대왕과 문무대왕을 존숭하였다. 앞의 사료 B에서 살펴보았듯이 당에서 신라의 태종 묘호가 당 태종과 같다고 하여 문제 삼았으나, 신문왕은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신문왕은 문무왕을 위해 감은사를 완성하였고³⁹⁾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 成典을 설치하였으며⁴⁰⁾ 성덕왕은 무열왕을 위해서 동왕 6년(707)에 봉덕사를 짓기 시작하였다.⁴¹⁾

이상에서 신라 중대왕실은 수로왕을 종묘에서 천황하였으며 혁거세와 알영을 二聖으로 받들었고, 김유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던 태종대왕과 문무대왕을 오묘의 ‘불훼지종’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신라 중대왕실은 금관야야집단의 후손인 김유신가를 자신들과 분리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중대왕실 중심으로 권력이 운영되면서 나온 조치로, 김유신 후손이 중대왕실에서 배제되어 가는 것도 이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을 것

앞의 논문, 378~379쪽). 그리고 9세기 후반 경문왕가기에 이르러 김유신 가문은 신김씨를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하고(이문기, 2004, 앞의 논문, 50~54쪽 ; 김수미, 2009, 「신라 김유신계의 정치적 위상과 추이」, 『역사학 연구』 35, 16쪽), 흥덕왕대 김유신의 흥무대왕 추봉으로 그 후손들이 스스로 신김씨를 표방했다고 보기도 한다(김태식, 2006, 앞의 논문, 207~210쪽). 김창겸은 흥덕왕대 김유신이 흥무대왕으로 추봉되면서 그 후손들은 일반 김씨 진골귀족과는 다른 특별한 예우를 위해 신김씨를 주었다고 하였다(2010, 앞의 논문, 55쪽 및 63~64쪽).

37) 윤선태, 2000, 「신라의 사원성전과 금하신」, 『한국사연구』 108, 13~14쪽.

38) 『삼국사기』 권32, 잡지1 제사.

39) 김재원·윤무병, 1961, 「감은사지발굴조사보고서」, 『국립박물관 특별조사보고』 2, 을유문화사, 1961, 5쪽.

40) 『삼국사기』 권38, 잡지7 직관(상) ; 채미하, 2000, 「신라 혜공왕대 오묘제의 개정」, 『한국사연구』 108 ; 2008, 앞의 책, 181~184쪽.

41) 봉덕사는 원래 무열왕을 위한 사원이었으나, 성덕왕을 위한 사원으로 변경되어 완성되었다(이호영, 1974, 「신라 중대왕실과 봉덕사」, 『사학지』 8, 9쪽).

이다. 따라서 김유신가는 새로운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3. 김유신의 ‘大王’ 추봉과 그 이유

『삼국사기』 열전 김유신(하)에는 흥덕왕이 김유신을 흥무대왕으로 추봉했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그 해가 보이지 않지만,⁴²⁾ 『삼국사절요』·『동국통감』·『동사강목』등에는 흥덕왕 10년으로 기록되어 있다.⁴³⁾ 그런데 『삼국유사』 기이 김유신조에는 경명왕대로 나오며 『삼국사절요』에는 경명왕 7년에도 김유신을 흥무대왕으로 추봉하였다⁴⁴⁾고 한다. 이처럼 김유신의 흥무대왕 추봉은 흥덕왕대로 대부분 전해지지만, 경명왕대에 추봉되었다는 기사도 있다. 따라서 경명왕대 추봉 기사 역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⁴⁵⁾

신라 중대 말 김유신에 대한 인식 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 대한 신라 중대왕실의 대우는 중대 초와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김유신가는 여기에 대응하여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음이 주목된다.

D. 1) 먼 훗날 37대 혜공왕 때 대력 14년 기미(779) 4월에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유신공의 무덤에서 일어났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날쌔 말을 댔는데, 그 모양이 장군과 같았고 또한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든 40명 가량의 군사가 그 뒤를 따라 죽현릉으로 들어갔다. 조금 있더니 왕릉 속에서 왁자지껄하면서 우는 듯한 소리가 났으며, 혹은 하소연하는 듯한 소리가 났다. 그 말소리는 “신이 정치를 돕고 평생동안 어려운 시국을 구하고 삼국을 통일한 공을 세웠습니다. 이

4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2, 경상도 김해도호부 인물 김유신 ; 『五洲衍文長箋散稿』 경사편 5 논사류1 향도변증설 및 중국과 우리나라의 기생의 근원에 대한 변증설 (華東妓源辨證說)에도 흥덕왕대로 나온다.

43) 이현태, 2006, 앞의 논문, 239~240쪽 ; 김창겸, 2010, 앞의 논문, 46~47쪽.

44) 김창겸은 2010, 앞의 논문, 49~50쪽에서 『삼국사절요』의 경명왕 7년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다.

45) 김태식은 2006, 「김유신의 흥무대왕 추봉시기」, 『신라사학보』 6, 210~211쪽에서 두 사서에 기록된 것은 그 이유가 있다고 하였고 김수미는 2009, 앞의 논문, 13쪽 주41에서 흥덕왕대 처음으로 흥무대왕이 추봉되었고 이후 박씨왕이 등장한 후 경명왕은 흥덕왕대의 사실을 다시 확인하여 정치에 이용하였다고 보았다.

제 혼백이 되어서도 나라를 수호하며, 재앙을 물리치고 환난을 구제하려는 마음은 잠시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오나, 지난 경술년에 신의 자손이 아무런 죄도 없이 죽음을 당하였고, 임금이나 신하들은 저의 공적을 생각지 않습니다. 신은 차라리 멀리 다른 곳으로 옮겨 가서 다시는 나라를 위해 애쓰지 않을까 하니, 바라옵건대 왕께서는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왕이 대답하기를, “오직 나와 공이 이 나라를 지키지 않는다면 저 백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공은 이전과 다름없이 힘쓰도록 하오”라고 하였다. 세 번이나 청해도 세 번 다 듣지 않자, 회오리 바람이 돌아가고 말았다. 2) 왕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내 대신 김경신을 보내 김공의 무덤에 가서 사과하였다. … 3) 미추의 혼령이 아니었던들 김공의 노여움을 막지 못했을 것이므로, 왕이 나라를 수호한 힘은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邦人들이 그 덕을 생각하여 三山과 동격으로 제사하고 (그 격을) 떨어뜨리지 않았고 (그) 격을 오릉 (제사)의 위에 놓았다. (미추왕릉을) 大廟라고 불렀다. (『삼국유사』 권1, 기이2 미추왕·죽엽군)⁴⁶⁾

D-1)에 따르면 대력 14년, 혜공왕 15년(779)에 김유신의 혼이 ‘경술년(혜공왕 6)에 자신의 후손이 被誅된 사실⁴⁷⁾을 노여워하여 미추왕(시조)릉에 들어가 미추왕의 혼에게 죄 없이 죽은 사실을 호소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 가기를 청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김유신의 혼은 삼국통일 과정에서 동고동락하였던 태종대왕과 문무대왕의 무덤에 가지 않고 미추왕의 능에 갔다. 미추왕은 혜공왕대에 ‘김성 시조’로 五廟의 首位에 모셔지고 ‘不毀之宗’이 되었는데, 미추왕을 ‘김성 시조’라고 한 것은 아마도 그가 김씨로서 처음으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⁴⁸⁾

신라에 종묘제가 수용된 이후 중대왕실에서는 오묘의 수위에 소호금천씨에 연원을 둔 성한을 태조대왕으로 모셨는데, 혜공왕 12년에는 태조대왕 대신 김성의 시조인 미추왕을 시조대왕으로 모셨다. 이러한 미추왕은 태종대왕과 문무대왕과 함께 불훼지종이었다. 그런데 위의 사료 D-3)에서 대

46) 『삼국사기』 권43, 열전3 김유신(하) 附 玄孫 金巖조도 참고.

47) 경술년의 사건은 혜공왕 6년 김용의 반란을 의미하는 것이거나 혹은 김유신의 후손이 그의 난에 가담하여 죽임을 당한 것으로 파악하였다(이기백, 1974, 앞의 책, 250쪽).

48) 今俗稱王之陵爲始祖堂 盖以金氏始登王位故 (『삼국유사』 권1, 기이2 미추왕·죽엽군) ; 채미하, 2000, 앞의 논문 ; 2008, 앞의 책, 177~181쪽.

력 14년 4월, 즉 혜공왕 15년 4월에 이르러서야 미추왕릉은 大廟로 불렸다고 한다. 이로 볼 때 미추왕을 오묘의 수위에 모시는 것과 관련된 갈등이 있었음을 알려준다.⁴⁹⁾

미추왕은 무열계 뿐만 아니라 내물계에게도 ‘始封之君’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당시 정국의 주도권은 김양상 세력에 의해 장악되고 있었고 김양상은 혜공왕 13년에 時政을 極論하였다. 김양상이 극론한 시정에는 개정오묘제에서 수위에 모셔진 시조대왕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추왕을 오묘의 수위로 인정함으로써 김양상 세력은 무열계 독점의 왕위계승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열계로서는 기꺼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김유신의 혼이 태종대왕과 문무대왕의 능에 가지 않고 미추왕릉에 감으로써 그 갈등은 마무리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미추왕이 시조대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김유신가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혜공왕이 김유신의 혼이 미추왕릉에 간 것을 듣고 懼, 두려워하였다(E-2))는데서⁵⁰⁾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김유신가는 무열계를 떠나 내물계와 연합하였다. 경술년인 혜공왕 6년 김용의 난 직전 김유신의 후손인 김암의 일본 사신 파견은 김양상 세력과 관계있으며 김유신 후손의 신원이 반혜공파에 의해 이루어졌다는가,⁵¹⁾ 혜공왕이 김유신의 능에 上臣 김경신을 보내 사죄하게 한(D-2))데서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중대말 무열계에 의해 배제되었던 김유신가는 내물계와 연합하여 그 후손의 신원이 이루어졌고 이후 김유신가는 김양상의 왕위 계승 및 김경신의 왕위계승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⁵²⁾ 김유신의 현손인 김장청은 8세기 말을 상한으로 하여 835년 이전에 김유신행록을 지었다.⁵³⁾

49) 채미하, 2000, 앞의 논문 ; 2008, 앞의 책, 184~194쪽.

50) 혜공왕이 두려워하였다는 것은 김유신 후손들의 정치적인 압박이 컸기 때문으로 보기도 한다(조범환, 2007, 앞의 논문, 59쪽).

51) 이기백, 1974, 앞의 책, 247~252쪽. 한편 조범환은 2007, 앞의 논문, 60쪽에서 김암(이찬)의 예를 통해 김유신의 후손들은 중대 말까지도 정치적으로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였으며 김유신의 설화는 김유신 후손의 신원운동이 아니라 김유신 후손들의 정치적 지위를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았다.

52) 김수미, 2009, 앞의 논문, 8~9쪽 참고.

53) 김호동, 2011, 앞의 논문, 302쪽. 김장청이 김유신 행록을 저술한 동기와 관련된 제 견해는 김호동, 2011, 앞의 논문, 302~303쪽 참고.

그리고 흥덕왕은 김유신을 흥무대왕으로 추봉하였다.

흥덕왕대의 정치는 애장왕·헌덕왕대의 정치와 연결되어 있었다. 특히 애장왕대의 오묘제 경정은 당시 섭정을 한 김언승이 주도하였고⁵⁴⁾ 흥덕왕 역시 여기에 관여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애장왕대의 오묘에서는 개정오묘제에서 불훼지종이었던 태종대왕과 문무대왕은 별묘로 두어졌다. 이와 같이 태종대왕과 문무대왕의 신위를 오묘에서 분리시켰다는 것은 원성왕계가 김주원 세력을 일정 정도 극복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⁵⁵⁾ 곧 경정 오묘제는 김주원 세력에 대한 원성왕계의 강화라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⁵⁶⁾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김유신가는 중대 말 이후 신라 하대 왕권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것의 절정은 김헌창의 난이었다. 헌덕왕 14년(822)에 김주원의 아들인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키자, 이 반란을 평정하는데 金雄元을 비롯한 김유신 후손⁵⁷⁾이 공을 세웠다.⁵⁸⁾ 그런데 김헌창은 금관가야 지역의 사신과 도독을 위협하여 자신에게 협력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로 볼 때 금관가야 지역은 김헌창의 난에 동조하였는데, 이 난에 호응하였던 세력은 이 지역의 토착세력이었을 것이다.⁵⁹⁾ 이것은 왕경의 김유신가와는 다른 행보였다.

김헌창의 반란은 귀족사회의 분열뿐만 아니라 지방인의 동요를 말한다.⁶⁰⁾ 다시 말해 이것은 현존질서의 약화와 반대세력의 대두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때문에 헌덕왕을 이어 왕위에 오른 흥덕왕은 이러한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흥덕왕은 김헌창의 난을 진압하는데 공이 큰 김유신 후손을 무열계 및 금관가야지역과 분리하려고 하였을 것이

54) 이문기, 1999b, 앞의 논문, 676~677쪽.

55) 최병헌은 애장왕 2년 김씨 왕족 전체의 공통시조 외에는 모두 원성왕의 직계로 보아 무열왕계 의식을 완전히 극복하게 되었다고 한다(1981, 「신라 하대 사회의 동요」, 『한국사』 3(국사편찬위원회), 436쪽).

56) 채미하, 2001, 「신라 하대의 오묘제」, 『종교연구』 25 ; 2008, 앞의 책, 201~216쪽.

57) 문명대, 1976, 「신라 신인종의 연구」, 『진단학보』 41, 198쪽.

58) 김동수, 1982, 앞의 논문, 40쪽.

59) 김상돈, 1996, 앞의 논문, 56쪽.

60) 김동수, 1982, 앞의 논문, 38~41쪽 ; 황선영, 1988, 「신라 하대 김헌창 난의 성격」, 『부산사학』 35.

다. 그것이 김유신의 흥무대왕 추봉이 아니었을까 한다.⁶¹⁾

흥덕왕이 김유신을 대왕으로 추봉한 것은 개혁적인 내용이었다. 이와 같은 흥덕왕의 정치 행보는 동왕 3년(828)에 弓福(장보고)이 중국 당나라의 徐州에서 小將으로 활약하다가 귀국하자 지금의 莞島에 청해진을 설치하게 하였고 淸海鎮大使에 임명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신라 ‘진’의 최고 지휘관은 頭上大監, 都護 또는 鎮頭라 하였다. 그런데 장보고만이 ‘대사’로 나온다. 이것은 장보고의 청해진과 그 세력들이 다른 진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신라 정부에서 인정한 것이다.⁶²⁾ 흥덕왕 9년의 교는 애장왕대 이루어진 사치 금지와 관련된 정책의 완결일 뿐만 아니라 현실에 입각하여 골품제를 새롭게 정비한 것이었다. 즉 흥덕왕은 당시 동요되던 골품제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한정적이지만, 지방인도 골품제에 편제하였다. 이것은 이전 골품제 사회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내용이었다.⁶³⁾

이상과 같은 흥덕왕의 개혁 정치는 흥덕왕을 전후로 있었던 신라의 정치·경제·사회의 위기상황을 해결하고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흥덕왕은 자신의 지지 기반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김유신을 흥무대왕으로 추봉하여 김유신가를 자신의 지지기반으로 삼으려고 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장보고를 청해진 대사에 임명하였다는가 한정적이지만 지방인도 골품제에 편제하려고 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사후 발생한 왕위쟁탈전은 흥덕왕이 행한 개혁정치의 실패를 말한다. 이것은 흥덕왕이 김유신을 대왕으로 추봉함으로써 무열계와 금관가야지역을 분리하려고 했던 것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심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심희의 선조는 임나왕족, 즉 금관가야 왕족이며 흥무대왕을 먼 조상으로

61) 흥덕왕대 김유신을 흥무대왕으로 추봉한 이유에 대해 대체로 김유신의 후손이 김헌창의 난에 공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김창겸은 흥덕왕 9년 골품제 규정의 반포로 생겨난 김유신계의 불만과 반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았고(2010, 앞의 논문, 55쪽 및 63~64쪽), 윤경진은 2015, 앞의 논문에서 흥덕왕대 체제 통합을 도모하고 국왕의 권위를 정립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였다.

62) 채미하, 2005, 「청해진의 사전편제와 해양신앙」, 『진단학보』 99 ; 2008, 앞의 책, 338~339쪽.

63) 채미하, 2013, 「신라 흥덕왕대의 정치와 의례」, 『신라문화』 42 ; 2015, 『신라의 오례와 왕권』, 혜안, 201~216쪽.

하고 신김씨라고 하였다.⁶⁴⁾ 그런데 심희는 진성왕 즉 신라왕실의 초빙에는 응하지 않았는데,⁶⁵⁾ 얼마 있지 않아 금관가야지역의 세력가로 보이는 進禮城諸軍事 김윤희⁶⁶⁾의 귀의는 받아들이고 있다.⁶⁷⁾ 이처럼 심희는 김유신의 후손으로 여전히 금관가야지역과 연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경명왕은 동왕 2년(918) 10월에 김해에서 활동하던 심희를 초빙하였으며, 경명왕 7년 4월 24일에 심희가 입적하자 왕은 그를 후하게 장례를 치르게 하였다고 한다.⁶⁸⁾ 그리고 김유신을 흥무대왕으로 추봉하였다.

당시 금관가야지역에서는 가야 부흥운동과 관련된 움직임이 있었다.⁶⁹⁾ 하지만 구백제지역과 구고구려지역과는 달리 이 지역은 아직까지는 신라의 영토였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해 신라 뿐만 아니라 후백제와 고려도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⁷⁰⁾ 이것은 경명왕 4년(920) 10월에 견훤군이 대야성을 함락시키고 진례로 오자 왕건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⁷¹⁾는데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로 볼 때 경명왕은 당시의 혼란한 정치·사회적 상황 속에서 금관가야지역의 동요를 무마하고 그 지역에 대한 신라의 지배권을 보여주려고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심희를 중앙으로 불러들이고 김유신을 흥무대왕으로 재추봉한 것이 아닐까 한다.⁷²⁾ 이와 관련해서 경명왕 5년에 천사옥대가 재

64) 이현태, 2006, 앞의 논문, 146~147쪽에서 심희는 김유신 가문의 일원이 아닌 김해에 토착하고 있었던 김해거주 금관가야왕족의 후손으로 신김씨를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65) 「진경대사보월능공탑비문」. 이를 통해 심희의 반신라적 성향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최병헌, 1978, 「신라말 김해지방의 호족세력과 선종」, 『한국사론』 4, 412~413쪽 ; 조범환, 1994, 「신라말 봉림산문과 신라왕실」, 『진단학보』 78, 53쪽 ; 김상돈, 1996, 앞의 논문, 65~66쪽).

66) 김윤희는 9세기 말 10세기 초에 금관가야지역에 새로 등장한 지배세력이었다(최병헌, 1978, 앞의 글, 405~408쪽 ; 김상돈, 1996, 앞의 글, 58~62쪽).

67) 「진경대사보월능공탑비문」. 김윤희가 심의를 초빙한 것은 김해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구금관가야 왕족 후손들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최병헌, 1978, 앞의 논문, 418쪽 ; 조범환, 1994, 앞의 논문, 51~52쪽)

68) 「진경대사보월능공탑비문」.

69) 김상돈, 1996, 앞의 논문, 71~76쪽.

70) 김상돈, 1996, 앞의 논문, 77~80쪽.

71)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12 경명왕 4년.

72) 김상돈은 경명왕이 심희를 초빙한 것은 심희를 통해 구가야권 호족 연합세력과

등장하는 것이 관심을 끄는데, 경명왕 당시 사람들은 천사옥대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황룡사 승려의 도움으로 경명왕은 재계를 올린 후에 천사옥대를 볼 수 있었다고 한다.⁷³⁾

천사옥대는 진평왕대 이후 성골왕만이 착용할 수 있는 것으로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신문왕대 이후에는 흑옥대가 그것을 대신하였다고 보았다.⁷⁴⁾ 그런데 이러한 천사옥대가 경명왕대 다시 등장하였다. 이를 통해 경명왕은 자신의 왕권에 대한 정당성을 천사옥에서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김유신을 흥무대왕으로 재추봉한 것은 금관가야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신라가 가지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4. 김유신의 推尊과 家廟의 운용

김유신은 사후에 문무왕과 함께 二聖, 단독으로는 聖臣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신라 하대 대왕으로 추봉되면서 그 위상에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무덤을 비롯하여 그를 기리는 기념물 역시 대신의 격에서 대왕의 격으로 변화되었을 것이다. 다음 사료는 김유신 사후 그의 장례와 관련된 내용이다.

E. 가을 7월 1일에 이르러 사저의 正寢에서 죽으니 향년 79세였다. 대왕이 부음을 듣고 대단히 슬퍼하였다. 1) 부의로 고운 빛깔의 비단 1천 필과租 2천 섬을 내려 장례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2) 군악대에서 북 치고 피리 부는 사람 1백 명을 보내주었다. 3) 金山原에 나아가 장사지냈고, 담당 관서에 명하여 비를 세워 공적과 명예를 기록하게 하였다. 4) 또한 民戶를 정하여 들여보내 묘를 지키도록 하였다. (『삼국사기』권43, 열전3 김유신(하))

연결하려는 신라 정부의 의도가 들어 있었다고 보았고 김유신을 흥무대왕으로 추봉한 것은 구가야권 호족연합세력을 주도한 김해 호족과의 관계 개선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그들을 회유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하였다(1996, 위의 논문, 76~77쪽). 김수미, 2009, 앞의 논문도 참고.

73)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12 경명왕 5년 ;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 20년 여름 5월.

74) 채미하, 2006, 앞의 논문, 52~60쪽 ; 2008, 앞의 책, 236~238쪽.

위 사료 E에 따르면 김유신이 죽자, 문무왕은 1) 부의로 고운 빛갈의 비단 1천 필과租 2천섬을 내려 상례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2) 軍樂鼓吹 1백 명을 주어 장사지내게 했으며 3) 비를 세워 공적과 명예를 기록하였고 4) 民戶를 정하여 묘를 지키도록 하였다고 한다.

문무왕 13년 김유신 사후의 일련의 喪葬禮는 당의 상장례를 토대로 한 것이다.⁷⁵⁾ 이후 이것은 중신들에게도 적용되었는데, 김양이 죽자 賻儀와 葬禮를 김유신의 舊例에 따르도록 한데서⁷⁶⁾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김유신 사후의 상장례는 김유신이 대왕으로 추봉되면서 그의 무덤 등은 王禮에 의거하여 변하였을 것이다.

우선 그 무덤은 왕급으로 改修되었을 것이다.⁷⁷⁾ 비도 새롭게 만들었을 것인데, 설인선의 김유신비가 그것이 아니었을까 한다.⁷⁸⁾ 그리고 김유신 사후 民戶를 정하여 묘를 지키도록 하였다고 한다. 신라의 수묘인(가)와 관련해서 눌지왕 19년(435)에는 역대왕릉을 정비하였지만, 당시에는 수묘인을 두지 않았다.⁷⁹⁾ 반면 문무왕 4년(664) 제왕능원에 백성 20호씩을 이주시켰다고 한다.⁸⁰⁾ 김유신 사후에 민호의 규모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대왕으로 추봉되면서 ‘제왕능원의 백성 20호’와 견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와 같이 김유신은 대신에서 대왕으로 격상되면서 무덤의 규모뿐만 아니라 그를 기리는 비와 수묘가에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김유신의 이름은 피휘되었고 이후 김유신은 추봉호인 흥무대왕으로 불려졌을 것이다.⁸¹⁾ 신라에서 대왕을 추봉하기 시작한 것은 김춘추가 즉위와 동시에 考인 용춘을

75) 나희라, 2004, 「고대의 상장례와 생사관」, 『역사와 현실』 54, 181~182쪽 ; 2008, 『고대 한국인의 생사관』, 112쪽.

76) 『삼국사기』 권44, 열전4 김양 ; 채미하, 2012, 「한국 고대의 죽음과 상·제례」, 『한국고대사연구』 65 ; 2015, 앞의 책, 250쪽 및 190~191쪽.

77) 김창겸, 2010, 앞의 논문, 56~57쪽.

78) 國子博士 설인선이 찬한 김유신비의 건립에 대해 김유신의 몰년이 문무왕 13년 이므로, 그 무렵으로 보기도 하지만(정호섭, 2004, 「신라의 국학과 학생녹읍」, 『사충』 58, 49쪽), 흥덕왕대(이현태, 2006, 앞의 논문, 237~240쪽 ; 김창겸, 2010, 앞의 논문, 58쪽 및 60~61쪽), 경문왕대(이문기, 1999b, 앞의 논문, 662~667쪽)로 보기도 한다.

79)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눌지마립간 19년.

80)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4년.

81) 김창겸, 2010, 앞의 논문, 59쪽.

문흥대왕으로 추봉한 것이었고⁸²⁾ 주로 하대에 대왕 추봉이 이루어졌다.⁸³⁾ 그리고 왕위에 즉위한 국왕이 왕위에 오르지 못했던 직계 조상을 대왕으로 추봉한 것은 이들을 종묘에 모시기 위한 조치라고 하였다.⁸⁴⁾

직계[世系] 조상을 祔廟하면서 시행된 오묘제는 家祖的 성격을 지닌 것으로,⁸⁵⁾ 신라 왕실의 가계 성립이나 가계 인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신문왕대의 오묘제 시정은 무열왕계를 중심으로 한 가계가 성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개정오묘제는 혜공왕대 불안한 정치 상황에서 나온 조치로 무열계가 삼국통일에 공이 큰 태종대왕과 문무대왕을 ‘불훼지중’으로 뒀으로써 무열계 입지를 공고히 하려고 한 것이었다. 애장왕대 오묘제 경정은 원성왕계라는 계보의식의 성립과 신라 하대 근친왕족들을 원성왕의 후손이라는 범주 안에서 결집하였다. 경문왕 6년(866)의 오묘⁸⁶⁾에서는 원성대왕의 신위가 遷毀되면서 경문왕계라는 가계의식의 성립과 ‘경문왕가기’라는 시대를 창출하였다.⁸⁷⁾

이처럼 직계조상을 모시는 제사가 시행되면서 신라 왕실의 가계 인식은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진골 귀족들 역시 그러하지 않았을까 한다.⁸⁸⁾ 『예기』 왕제편을 보면 천자부터 제후, 大夫·士는 廟를 건립해 거기에서 제사지내고 庶人은 주거 공간인 寢에서 제사한다고 한다.⁸⁹⁾ 이 중 大夫·士·庶人의 제사대상은 대부는 3대, 사는 2대, 서인은 父의 제사에 그치거나 혹 최대 2대까지 제사하기도 하였다.⁹⁰⁾ 이러한 家廟制는 중국에서 漢代까지는 그다지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위·진시대에 묘제가 재정비되었고 晉代에 家

82)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태종무열왕 원년.

83) 채미하, 2001, 앞의 논문 ; 2008, 앞의 책, 195~243쪽 참고.

84) 米田雄介, 1987, 「三國史記 見新羅五廟制」, 『日本書紀研究』 15, 塙書房, 318쪽.

85) 변태섭, 1964, 「묘제의 변천을 통하여 본 신라 사회의 발전과정」, 『역사교육』 8, 68쪽.

86) 『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11 경문왕 6년.

87) 채미하, 2008, 앞의 책, 제3장~제4장 참고.

88) 채미하, 2012, 앞의 논문, 66~69쪽 ; 2015, 앞의 책, 256~257쪽. 김영하는 신라 중대왕실로부터 분화한 귀족과 진골 자체에서 분화한 귀족가문들은 직계 조상을 중심으로 한 가계의식을 지니게 되었고 大夫의 예제에 해당하는 3묘를 설치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2007, 『신라중대사회연구』, 일지사, 229~230쪽).

89) 『禮記』 王制.

90) 『國語』 楚語 下에는 ‘士庶不過其祖’라고 하고 있다.

廟라는 단어도 출현하였다. 北齊 武帝 河清 3년(564)의 河清令은 현존 최고의 가묘제 관련 令文이다.⁹¹⁾ 이러한 가묘제는 당에서 완비되었고 그에 따라 관료의 가묘 설치도 상례화 되었다고 한다.⁹²⁾

신라 하대 무열계에서 내물계로 왕위가 넘어가면서 무열계는 그들의 가묘를 두었을 것인데, 김주원 가문이 대표적이다. 경문왕대의 오묘에서는 원성대왕이 종묘에서 천회되면서 원성왕계를 중심으로 한 가묘의 설치도 생각된다. 그리고 수로왕묘는 신문왕대 수로왕의 신위가 신라 종묘에서 회철되면서 이후에는 家廟로 기능하였을 것이다.⁹³⁾

김유신가는 김유신이 흥무대왕으로 추봉되기 이전 금관가야지역에 있는 수로왕묘에 제사지냈을 것이다.⁹⁴⁾ 그런데 김유신이 대왕으로 추봉되면서 김유신은 금관가야의 중시조가 되었다. 이것은 금관가야집단 내의 새로운 가계의 분화를 말하는 것이며 김유신가는 수로왕묘 제사와도 분리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이로 볼 때 김유신가는 김유신을 家祖로 하는 새로운 사당을 설치하였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이 주목된다.

F. 胎靈山이 있다[신라 때에 만노군 태수 김서현의 아내 만명이 김유신을 낳아 그 태를 이 현 남쪽 15리 지점에 묻었더니 귀신으로 되었다고 하여 태령산이라고 불렀다 한다. 신라 때부터 祠宇를 설치하여 봄과 가을에 왕이 향을 보내 제사를 지냈으며 고려에서도 그대로 하였다].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청주목 鎭州)⁹⁵⁾

앞의 F를 보면 신라 때에 祠宇를 세웠다고 하였다. 사우는 선조 혹은 선현의 神主나 影幀을 모셔 두고 제향을 행하는 장소이다. 이와 같은 사당

91) 『隋書』 권10, 예의지.

92) 『通典』 권48, 諸侯大夫宗廟 ; 『唐會要』 권19, 百官家廟 ; 『唐開元禮』 권3, 序禮(下). 육정임, 2007, 「宋代 조상제사와 제례의 재구상」, 『한국사연구』 27, 318~319쪽.

93) 채미하, 2012, 앞의 논문 ; 2015, 앞의 책, 258~261쪽.

94) 이현태는 2006, 앞의 논문, 254쪽에서 김유신 가문은 수로왕의 후손이라기 보다는 소호금천씨의 후예임을 적극적으로 내세웠으며 문무왕대 수로왕묘 제사가 재개되었지만 김유신 가문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즉 김유신 가문과 김해거주 금관가야왕족의 후손들은 서로 다른 세계의식을 표방하였다는 것이다.

95)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6, 충청도 진천현 사묘조도 참고.

이 건립된 것은 흥무대왕 추봉 이전으로 보기도 하지만,⁹⁶⁾ 김유신이 흥무대왕으로 추봉되면서 김유신에 대한 제사는 그 전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한다. 아마도 김유신이 대왕으로 추봉되면서 김유신가는 김유신을 가계집단의 시조로 하는 家廟를 운용하였을 것이다.

앞의 사료 B에서 수로왕묘에 대한 제사는 금관가야가 멸망된 이후 한 때 중단되었다가 문무왕대 재개되었는데, 『삼국유사』 가락국기를 보면 수로왕의 17세손인 갱세 급간이 주관하였고 그 이후 수로왕에 대한 제사는 규림이 선대를 이어 제사를 받들었고 그가 죽자 그 아들 간원경이 계속해서 제사지냈다고 한다.⁹⁷⁾ 그런데 신라 말에 영규⁹⁸⁾가 수로왕의 제향을 빼앗아 淫祀하던 중 사당의 대들보가 부러져 죽었다고 하였으며 영규의 아들 준필이 수로왕의 후손인 간원이 차린 제물을 치우고 자기가 차린 제물로 제사를 지냈는데,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 집에 돌아와 죽었다.⁹⁹⁾

『예기』 곡례를 보면 제사를 모셔야 할 바가 아닌데 제사를 모시는 것을 淫祀라 하고 음사에는 복이 없다고 하였다.¹⁰⁰⁾ 이처럼 유교의 제사는 死者와 生者の 관계가 일정한 혈연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었다. 유교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조상을 받드는 것은 귀신이나 영혼의 실재성을 믿어서가 아니라 유교의 덕목인 효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¹⁰¹⁾ 때문에 『논어』 八佾에는 “제사는 죽은 조상이 그 곳에 있는 듯이 지내야 한다(祭

96) 김호동, 2011, 앞의 논문, 305쪽.

97) 김상돈, 1996, 앞의 논문, 64쪽.

98) 영규를 충지의 부장 내지 그 휘하에서 제사를 담당한 인물(최병헌, 1978, 앞의 논문, 415쪽)로 보기도 하며 수로왕의 후손이 아닌 외래세력(백승충, 2000, 「통일기~나말여초의 가야사 인식」, 『한국고대사와 고고학』(학산김정학박사송수기념논총), 852~853쪽)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김상돈은 1996, 앞의 논문, 69쪽에서 영규부자를 중앙에서 김해로 낙향한 김유신의 후손으로 파악하기도 하며 노명호(1988, 앞의 논문, 24~25쪽)와 이현태(2006, 앞의 논문, 252~253쪽)는 영규 부자를 김해거주 금관가야왕족의 후손으로 판단하였다.

99) 영규가 죽자 수로왕묘의 제사를 충지가 지냈는데, 수로왕 진영의 두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 내리자 충지가 곧바로 구림에게 주제권을 넘겼다(『삼국유사』 권2, 기이2 가락국기).

100) 非其祭而祭之 曰淫祀 淫祀無福(『예기』 곡례(하)).

101) 구미래, 2002, 「불교 전래에 따른 화장의 수용 양상과 변화 요인」, 『실천민속학연구』 4, 124쪽.

如在)”고 하였고, 『중용』에서도 “죽은 이 섬기기를 살아 있는 이 섬기듯이 한다(事死如事生)”고 하였으며, 『예기』 少義에는 “제사에는 (조상에 대한) 공경의 태도가 주가 된다”(祭祀主敬)고 하였다.¹⁰²⁾

이와 같이 유교 제사는 혈연관계가 있는 후손이 관장하는 것이었다. 김유신이 대왕으로 추봉되면서 그 제사는 김유신과 혈연관계가 있는 후손으로 방계가 아닌 직계, 재매정택에서 관장하지 않았을까 한다.¹⁰³⁾ 그리고 그 제사에 왕이 봄·가을로 좡과 祝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행제였다.¹⁰⁴⁾

수로왕묘에 대한 제사는 1년에 5번이며 그 제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王位田이라고 불리는 位土(문중의 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일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토지)가 있었다고 한다.¹⁰⁵⁾ 이로 볼 때 진천의 김유신사에서 이루어진 김유신에 대한 제사는 春秋 이외의 제사 외에도 또 다른 제사 날짜와 수로왕묘와 마찬가지로 그 제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田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상에서 김유신은 흥무대왕으로 추봉되면서 무덤 등이 그 위상에 맞게 변화되었으며 수로왕묘와 다른 김유신 직계 후손을 중심으로 한 가묘가 운영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강릉의 花浮山祠¹⁰⁶⁾과 군위의 金發翰祠¹⁰⁷⁾는 김유신사¹⁰⁸⁾로 김유신의 삼국통일과 관련된 공적을 기렸으며 신라 때에 건립되었고 한다. 아마도 김유신이 흥무대왕으로 추봉되기 이전에 건립되

102) 채미하, 2012, 앞의 논문 ; 2015, 앞의 책, 261쪽.

103) 『삼국유사』 권1, 기이1 김유신. 아마도 직계라 함은 財買井宅에 거주한 김유신의 종손이 아닐까 한다. 대체로 재매정택은 김유신 후손들의 宗家로 이해하고 있다 (이기동, 1978, 「신라 금입택고」, 『진단학보』 45 ; 1984, 『신라골품제사회와 화랑도』, 일조각, 185쪽 ; 이현태, 2006, 앞의 논문, 245~246쪽).

104) 김호동은 국행제로의 전환은 해공왕 15년 해공왕이 취선사에서 김유신을 명복을 빌게 하였을 때로 보았다(2011, 앞의 논문, 305~306쪽).

105) 『삼국유사』 권2, 기이2 가락국기.

106) 조선후기 沈相薰의 「純忠壯烈興武大王花山齋紀跡碑」에 의하면 김유신의 사당이 생긴 이유는 삼국통일 후 말갈의 침입으로 인해 강릉지역이 위기를 맞았을 때 김유신이 왕명을 받고 출정하여 화분산 아래에 본진을 설치하여 물리쳤기 때문이라고 한다(김호동, 2011, 앞의 논문, 306쪽). 『東湖勝覽』 권2 (江陵) 祠廟(及影堂現存)도 참고.

107) 『大東地志』 祠院.

108) 채미하, 2014, 「조선시대 강릉의 성황사와 단오제」, 『한성사학』 29, 80~88쪽.

었으며 김유신의 대왕 추봉 이후에도 여전히 제사가 이루어졌을 것인데, 지방민들 위주로 운영되었을 것이다.¹⁰⁹⁾ 다음도 관심을 끈다.

G. … 공을 위해 공덕보를 세우고 그 밑천으로 밭 30결을 취선사에 내려서 공의 명복을 빌게 하였다. 이 절은 김공이 평양(고구려)을 토벌한 후에 복을 빌기 위하여 세웠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삼국유사』 권1, 기이1 미추왕 죽엽군)

위의 사료 G는 혜공왕대 김유신의 혼을 달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김유신을 위해 불사에 보를 설치하였고 그 비용은 밭 30결이었으며 취선사에서 그 일을 맡았다. 취선사는 김유신이 삼국을 통일한 후 세운 절로, 혜공왕은 공덕보전 30결을 지급하면서 제사를 받들게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취선사에서는 김유신에 대한 제사가 혜공왕대부터 이루어졌다. 이것은 사찰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불교에서의 제사 내지 추선공양에서는 사자와 생자와의 관계가 혈연관계가 아닌 경우도 있었다.¹¹⁰⁾ 그리고 김유신이 대왕으로 추봉된 이후에도 취선사에서는 김유신에 대한 제사를 행하였을 것인데,¹¹¹⁾ 아마도 취선사는 김유신의 진전사원이 아니었을까 한다.¹¹²⁾ 이와 같이 김유신이 대왕으로 추봉된 이후 그에 대한 제사는 유교뿐만 아니라 불교 제사도 병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109) 김호동은 2011, 앞의 논문, 306~307쪽에서 지역별로도 김유신과 관련된 사당에서 그 추숭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110) 일례로 善律은 죽었을 때 만났던 사랑부 여인의 명복을 빌었다고 한다(『삼국유사』 권5, 감통7 善律還生). 채미하, 2012, 앞의 논문 ; 2015, 앞의 책, 262~263쪽.

111) 김호동은 김유신이 흥무대왕에 봉해진 후에도 그에 대한 제사는 취선사를 중심으로 국가적 추숭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2011, 앞의 논문, 304~307쪽).

112) 신라 왕실에서는 국왕의 원찰에 별도의 당우를 만들어 국왕의 진영을 봉안하고 예배하였다. 이는 고려 진전사원의 기원이 신라시대까지 소급되는 것으로, 신라 성전사원 중 하나인 영묘사에 선덕여왕의 소장 내지 진영을 모신 것이 최초이다. 그리고 신라 하대에 국왕에 한정되었던 진전사원의 조영이 귀족까지 확대되었다고 하였다(박남수, 2012, 「신라 진전사원의 조영과 그 사상적 배경」, 『신라문화』 40, 49~71쪽). 이로 볼 때 김유신의 원찰인 취선사는 김유신이 흥무대왕으로 추봉된 이후에는 진전사원으로 변화되지 않았을까 한다.

5. 맺음말

본 논문은 김유신 사후 신라 왕실의 김유신에 대한 인식과 그의 推尊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김유신은 사후 문무왕과 함께 二聖의 하나로 인식되었으며 聖臣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그의 사후 세워진 유신비에는 그의 시조가 중대왕실의 시조인 소호금천씨와 같다고 하였다. 게다가 김유신의 아들인 삼광은 신문왕대와 효소왕대까지 왕의 측근으로 활동하였으며 손자인 윤중은 성덕왕대 발탁되어 왕권 강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김유신 사후 그의 위상은 생전과 같았으며 그의 후손 역시 중대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활동하였다. 하지만 성덕왕의 친속들이 윤중을 '소원한 신하'로 질투하면서 김유신 가문은 점차 중앙 정치에서 멀어져 갔으며, 혜공왕 6년 김용의 반란은 그것에 대한 불만이였다. 이와 같은 김유신 후손에 대한 홀대는 김유신과 김유신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도 궤를 같이하였다. 문무왕대 신라의 종묘에 모셔졌던 수로왕의 신위는 신문왕이 즉위하면서 신라의 종묘에서 천취되었으며 중대왕실은 혁거세와 알영을 이성으로 인식하였다. 더불어 중대왕실은 자신들과 구별하기 위해 김유신 후손에게 신김씨를 주어 칭성하게 하였다고 보았다. 그리고 혜공왕대의 오묘에서 태종대왕과 문무대왕은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하는데 큰 공덕이 있어 불취지종으로 모셔졌다.

그런데 신라 하대 김유신은 흥무대왕으로 추봉되었다. 신라 중대 말 김유신가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였는데, 혜공왕 15년 김유신의 혼이 미추왕릉을 찾아간 것이 그것이었다. 미추왕은 혜공왕 12년에 오묘의 첫 자리인 시조대왕으로 모셔졌다. 하지만 미추왕을 시조대왕으로 모시는 것과 관련해서 무열계와 내물계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다. 이것은 혜공왕 13년 김양상의 시정 극론과 왕 15년에 비로소 미추왕릉이 대묘로 인정되는데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김유신의 혼이 미추왕을 찾아가 호소한 것을 계기로 그 갈등은 마무리되었다. 이와 같이 김유신가는 내물계와 연결되어 그 위상을 유지하였으며 김양상과 김경신이 왕위에 오르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고 김헌창의 난을 제압하기도 하였다.

흥덕왕이 김유신을 대왕으로 추봉한 이유는 당시의 정치·경제·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김유신가를 무열계 및 금관가야지역과 분

리시켜 자신의 지지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였었다. 하지만 김유신의 후손인 심희의 예를 통해 흥덕왕의 의도는 실패로 돌아갔다고 하였다. 경명왕이 김유신을 흥무대왕으로 추봉한 이유는 후삼국이라는 당시의 상황 속에서 금관가야지역에 대한 신라의 지배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당시 금관가야지역은 구백제, 구고구려 지역과는 달리 신라의 영토였고 후백제와 고려 역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따라서 경명왕은 금관가야지역에 있던 심희를 경주로 불러들였고 김유신을 흥무대왕으로 추봉하였던 것이었다.

이와 같이 김유신은 대신에서 대왕으로 그 위상이 변하면서 금관가야집단의 중시조로 자리매김하였고 推尊되었다. 따라서 김유신의 무덤은 신하의 무덤에서 왕의 무덤으로 변화되었으며 碑 또한 새로 세워졌고 수묘인의 수도 증가하였으며 김유신의 이름은 피휘되었다고 하였다. 김유신의 흥무대왕 추봉은 금관가야집단 내의 새로운 가계집단의 형성을 말하며, 이것은 수로왕묘와 구분되는 제사권의 형성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진천의 김유신사는 김유신가의 家廟로, 왕이 봄·가을에는 향축을 보내는 국행제였다. 김유신에 대한 추존은 강릉과 군위지역에서도 이루어졌는데, 이 지역의 제사는 지역민과 관련 있었다. 그리고 김유신이 대왕으로 추봉되기 전부터 취선사에서 김유신에 대한 제사가 행해졌는데 흥무대왕 추봉 이후 취선사는 진전사원 형태로 변하였다고 하였다. 이것은 흥무대왕을 모시는 유교식 사당과는 구별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김유신이 흥무대왕으로 추봉된 이후 그에 대한 제사는 가묘와 진전사원을 비롯하여 각 지역에 설치된 사당에서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김유신, 二聖, 聖臣, 미추왕, 흥무대왕, 흥덕왕, 경명왕, 가묘, 취선사

논문투고일 : 2015. 10. 12

논문심사시작일 : 2015. 10. 13

논문게재확정일 : 2015. 10. 27

참고문헌

1. 자료

『삼국사기』·『삼국유사』·『수서』·『통전』·『고려사』·『삼국사절요』·『동국통감』·『신증동국여지승람』·『동사강목』·『五洲衍文長箋散稿』·『대동지지』

2. 저서

이기백, 1974,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이기동, 1984, 『신라골품제사회와 화랑도』, 일조각.
김영하, 2007, 『신라중대사회연구』, 일지사.
나희라, 2008, 『고대 한국인의 생사관』, 지식산업사.
채미하, 2008, 『신라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_____, 2015, 『신라의 오례와 왕권』, 혜안.

3. 논문

김상돈, 1996, 「신라말 구가야권의 김해 호족세력」, 『진단학보』 82.
김수미, 2009, 「신라 김유신계의 정치적 위상과 추이」, 『역사학연구』 35.
김창겸, 2010, 「신라시대 金庾信의 興武대왕 追封과 ‘신김씨」, 『新羅史學報』 18.
김태식, 2006, 「김유신의 흥무대왕 추봉시기」, 『신라사학보』 6.
김호동, 2011, 「金庾信의 追崇에 관한 연구」, 『新羅史學報』 22.
박남수, 2012, 「신라 진전사원의 조영과 그 사상적 배경」, 『신라문화』 40.
윤경진, 2015, 「신라 興德王代 체제 정비와 金庾信 追封-三韓一統意識 출현의 일 배경-」, 『사림』 52.
이현대, 2006, 「新羅 中代 新金氏의 登場과 그 背景」, 『한국고대사연구』 42.
조범환, 2007, 「김유신의 가계와 후손들의 활동-‘가야계 출신이어서 가지는 한계’의 학설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신라사학보』 11.
채미하, 2006, 「천사옥대와 흑옥대」, 『경희사학』 24.
_____, 2012, 「한국 고대의 죽음과 상·제례」, 『한국고대사연구』 65.

_____, 2013, 「신라 흥덕왕대의 정치와 의례」, 『신라문화』 42.

_____, 2014, 「조선시대 강릉의 성황사와 단오제」, 『한성사학』 29.

The change in awareness of Kim Yooshin and honoring him of Silla Royal family

Chai, Mi-Ha

This thesis is studying the change in awareness of Kim Yooshin and honoring him after Silla's middle era. Kim Yooshin was deemed one of two saints with King Munmoo and a sacred minister after his death. But the royal family in Silla's middle era considered Hyeokgeose and Alyoung as two saints for Mooyeol lineage centered politics and during King Hyeogong period, great king Taejong and great king Munmoo were deemed 'Bulhwejjong'. This showed the status of Kim Yooshin was changed from early of Silla's middle era and it has the same way in treating the descendants of Kim Yooshin.

Therefore the Kim Yooshin family seeked a new way and it was that the spirit of Kim Yooshin visited the tomb of king Michoo. King Michoo was deemed the first ancestor king in revised Omyo-je during King Hyeogong period and there was conflict between Mooyeol lineage and Naemool lineage about this. But with Kim Yooshin's spirit visiting king Michoo and appealing, the conflict was settled.

With this Kim Yooshin family united with Naemool lineage after later of Silla's middle era and kept the status in Silla's later era, which was directly shown in Kim Yooshin honored a great king Hongmoo. King Heungdeok honored Kim Yooshin great king Hongmoo as a part of establishing his basis away from Mooyeol

lineage and Keumgwan gaya territory. And the reason king Kyungmyung again honered Kim Yooshin great king Hongmoo was to show Silla 's ruling over Keumgwangaya in the circumstances of three-kindoms period.

As Kim Yooshin's status was changed from a minister to a great king, the tomb of Kim Yooshin and various facilities were changed to the great king's class and Kim Yooshin was ranked a middle ancestor of Kuemgwangaya group. Kim Yooshin formed a new rite area seperated from king Sooro tomb, and thus Kim Yooshinsa in Jincheon was the family tomb of the Kim Yooshin family. The rite to Kim Yooshin was performed in Chuseon-sa too and Chuseon-sa was changed to Jinjeon temple after Kim Yooshin honored.

Key Words : Kim Yooshin, two saints, sacred minister, king Michoo, great king Hongmoo, King Heungdeok, king Kyungmyung, family tomb, Chuseon-sa